

무명 골퍼의 '인생 역전'

클랜턴, LPGA 첫 팀 경기 우승
2부 전전... 1부 투어 참가 3번 뿐
수완나뿌라 파트너로 출전 기회
8년간 번 돈의 절반 상금으로 받아
2년간 LPGA 전 경기 출전 자격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처음 열린 팀 경기다우 그레이트레이크스베이인비테이션에서 시드니 클랜턴(미국)의 인생 역전이 화제다.

클랜턴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

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파트너 제스민 수완나뿌라(태국)와 11언더파를 적어내 4라운드 합계 27언더파 253타로 우승했다.

클랜턴은 이 대회 우승 전까지 8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무명이었다.

우승은 커녕 첫 통과가 급선무였다. 2014년 요코하마 타이거 클래식 공동 7위가 지금까지 클랜턴의 생애 최고 성적이었다.

지난해 그는 8달러가 모자라 켈리파잉스쿨을 다시 치러야 했다.

켈리파잉스쿨에서도 성적은 신통치 않아 서른살이 된 올해 그는 주로 2부 투어에서 뛰었다.

세 차례 LPGA투어 대회에 출전했지만 성적은

초라했다. 한번은 컷 탈락, 한번은 40위, 또 한번은 64위였다. 받은 상금은 다 합쳐서 1만3000 달러뿐이다.

두 선수 다 아는 캐디가 다리를 놔 클랜턴은 작년 마라톤 클래식 우승자 수완나뿌라의 파트너로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이 대회 우승으로 클랜턴은 24만1269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그가 이 대회에 앞서 8년 동안 번 통산 상금의 절반에 가까운 거액이다.

대상 포인트 격인 CME 글로브 포인트 랭킹은 157위에서 60위로 경중 뛰었다.

2년 동안 LPGA투어에 우승자 자격으로 전 경기를 출전할 수 있다.

또 곧 열리는 예비양철편십삼과 브리티시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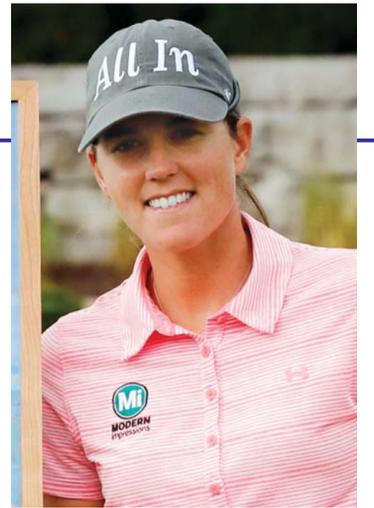
오픈, 그리고 내년 ANA 인스퍼레이션과 KPMG 여자PGA 챔피언십 등 메이저대회 출전권을 보장 받았다.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하는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내년과 2021년에 출전할 수 있다.

수완나뿌라는 "정말 멋진 경기력을 과시했다"면서 "최고의 파트너"라고 기뻐했다.

2명의 선수가 짝을 이뤄 1·3라운드는 포섬, 2·4라운드는 포볼 방식으로 치르는 팀 경기인 이 대회에서 클랜턴과 짝을 이뤄 우승한 수완나뿌라는 에리아 주타누간(태국)에 이어 LPGA투어에서 2승 이상을 올린 두 번째 태국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클랜턴

광주 FC 박진섭 감독 겨울양복 벗고 새출발



박진섭 감독

광주FC의 두현석(오른쪽)이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2019 K리그2 20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 2 20R 안양전 1-7 패... 개막 후 연속 무패 19경기로 마감

광주FC의 박진섭 감독이 '겨울 양복'을 벗고 새 출발선에 선다.

광주FC가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2019 K리그2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7, 대패를 당했다. 개막 20경기 만에 기록된 광주의 시즌 첫 패배다.

이 패배로 19경기 연속 이어져 오던 광주의 무패 행진이 중단됐고, 박진섭 감독은 개막전부터 착용한 '승리의 상징'인 스웨터와 두꺼운 겨울 양복을 벗게 됐다.

앞서 19경기에서 8실점에 그쳤던 광주의 수비가 겁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출발부터 좋지 못했다.

전반 2분 만에 펠리페가 안양 수비수 유종현과 감정싸움을 하다가 뒷머리 부위를 때리며 레드카드를 받았다. 비디오 판독 결과 옐로카드도 경감이 됐지만 시작부터 어수선했다.

그리고 전반 11분 안양 플라시오스의 측면 크로스를 받은 김상원이 오른쪽으로 광주의 골대를 뚫었다. 광주는 전반 17분에는 이정빈의 오른쪽 발을 막지 못하면서 0-2로 끌려갔다.

전반 32분 광주 두현석이 추격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았다.

여봉훈이 오른쪽에서 길게 띄워준 공을 잡은 두현석이 머리로 공을 넣으면서 1-2를 만들었다. 하지만 광주는 전반 35분 구본상에게 추가골을 내주

면서 1-3으로 전반전을 끝냈다.

후반에도 광주는 안양의 공세에 시달렸다.

후반 27분 나온 조규성의 헤딩슛을 시작으로 팔라시오스(후반 36분), 알렉스(후반 41분)가 연달아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그리고 후반 43분 팔라시오스가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하면서 안양의 5연승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다.

첫 패배를 기록한 광주는 부산아이파크의 무승부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부천FC를 상대한 부산은 2-1로 앞서 후반 47분 수비수 김명준의 자책골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이와 함께 1위 광주(13승 6무 1패·승점 45)와 2위 부산아이파크(11승 6무 3패·승점 44점)와의 승점은 6점 차가 됐다.

시즌 처음 패장이 된 박진섭 감독은 "초반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페이스를 놓친 것이 패배의 빌미가 된 것 같다. 제때 대응을 못했다. 감독으로서 부족했다"며 "19경기 동안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기와 수비를 펼쳤는데 아쉽다. 언젠가는 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 오늘 경기를 단순한 패배로 치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여 준 경기여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문제점은 고치면 된다. 승격을 위해 다음 경기 더욱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어렵지만 19경기 무패 신기록과 팀 최다 6연승에 만족하게 됐다. 더 나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시원하게 (겨울 양복)을 벗은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이영상'을 향하여

류현진 7이닝 1실점 시즌 11승

경쟁자 셔저, 부상 복귀전 연기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다저스)은 시즌 11승을 챙겼지만, 맥스 셔저(35·워싱턴 내셔널스)는 복귀가 미뤄졌다.

류현진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마이애미 말린스와 벌인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 하면서 시즌 11승을 챙겼다.

반면 부상 중인 셔저는 복귀가 연기됐다.

MLB닷컴은 20일 "셔저가 이번 주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 등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른쪽 어깨뼈 아래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 이번 주에 코르티손 주사를 맞았다"고 전했다.

셔저는 등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지난 14일 10일 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다. 애초 21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등판이 예상됐지만, 복귀가 또 연기됐다.

셔저는 볼펜투구 대신 캐치볼을 했다. 상태가 호전될 경우 이른 복귀도 가능하다. 워싱턴 구단은 셔저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예정이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은 류현진과 셔저 2파전 양상이다.

류현진은 이번 승리로 11승 2패를 기록하며 한 발 치고 나갔다. 메이저리그 1위인 평균자책점도 1.78에서 1.76으로 더 낮췄다.

셔저는 9승 5패, 평균자책점 2.30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추, 홈런공장 가동

휴스턴전 시즌 16호... 통산 205개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6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0-2로 끌려가던 4회 초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14일 휴스턴과의 경기 이래 일주일 만에 대표를 가동한 추신수는 통산 홈런을 205개로 늘렸다.

시즌 타점을 39개로 늘린 추신수는 통산 16000안타에 5개로 다가갔다.

추신수의 홈런으로 유일한 점수를 뽑은 텍사스는 1-6으로 6회 패 수렁에 빠졌다.

추신수와 히터 펜스가 안타 1개씩 쳤을뿐 나머지 타자들은 침묵했다.

1회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휴스턴 우완 선발 투수 호세 우르키디의 체인 지업을 퍼 올려 펜스 너머로 타구를 보냈다.

6회에도 삼진을 당한 추신수는 9회 2루수 팁블로 타격을 마쳤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4로 약간 떨어졌다.

/연합뉴스

무등중, 동우회장이 중학 야구 우승

무등중이 제24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49회 대통령기 전국중학 야구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진흥중을 5-4로 꺾고 우승했다.

대회 첫 경기에서 동성중을 4-5 꺾은 무등중은 둘째 날 충장중과의 경기에서는 4-2로 이겼다. 무등중은 마지막 상대 진흥중도 일축했다.

무등중은 오는 8월 부산 기장에서 열리는 대통령

기 전국중학 야구대회 광주 대표 자격도 얻었다.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다운(무등중) ▲우수투수상=이준혁(무등중) ▲타격상=김강준(타율 7타수 5안타/0.857·동성중) ▲최다투수=김재현(2개·무등중) ▲최다타점상=김강준(6타점·동성중) ▲감투상=장서익(진흥중) ▲미기상=강하늘바다(진흥중) ▲감독상=김성일(무등중) ▲지도상=이종우(무등중 부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중이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협회제공>